

Contemporary promenade highlights the urban heritage

Interview_David Closes | Núñez + Idil Ayrál

Can you describe the initial inspiration and concept behind the design of the new entrance façade of the Baroque Museum of Catalonia?

The concept proposed for the design was a response to three aspects of the context. Firstly, it addressed the existence of the partition wall of the old Jesuit college, which reflected the footprints of the disappeared Saint Ignatius’ Baroque church. Secondly, it considered the urban void formerly occupied by the church, which has become a new public space and the new entrance to the museum. Thirdly, it took into account the areas that offered views of the important landmarks of the city. At the beginning of the project, we used a crane truck to determine the ideal viewpoints for optimal views of these heritage sites. Thus, the form adopted by the new volumes is the result of two main factors: It is orientated to ensure views of the city’s landmarks and aims to reflect the inner logic of the new volumes, including the structure, ramps, spaces, and stands.

Considering the location that holds a rich cultural and historical heritage, how did the local context influence your design decisions and approach?

The context, both the heritage values of the building and the most relevant aspects of the urban environment, played a very important role in the design. They were determining elements in the proposal, but not in the architectural language we used. The project was conceived

도심 역사 유적과 관계 맺는 현대적 개입 방식

이달 아이랄: 카탈루냐 바로크 박물관의 입구 파사드를 디자인하는 데 얻은 영감과 설정한 컨셉을 설명해달라.

다비드 클로시스 이 누네스: 제안한 디자인 콘셉트는 세 가지 맥락에 대응한 것이었다. 첫째, 오래된 예수회 학교의 가벽의 존재를 다룬다. 가벽은 사라진 성 이그나티우스 바로크 양식 교회의 흔적을 암시한다. 둘째, 과거 교회가 차지했던 도시 공터를 새로운 공공 공간, 즉 박물관의 입구로 만든다. 셋째, 도시의 중요 랜드마크를 조망하는 지점들을 고려한다. 프로젝트 초기에 크레인 트럭을 이용하여 유적지들이 잘 보이는 최적의 전망 포인트를 찾았다. 결국 새 공간의 형태는 도시의 랜드마크를 조망하고, 구조, 램프, 공간, 스탠드 등 공간의 내부 논리를 반영하는 것, 이 두 가지 주요 요소에 따라 결정된 결과다.

이달 아이랄: 풍부한 문화역사 유산을 간직한 지역의 컨텍스트가 디자인 결정과 접근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다비드 클로시스 이 누네스: 건물의 유산적 가치와 도시 환경에서 가장 관련이 높은 측면의 맥락 모두 디자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계획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였지만, 우리가 사용한 건축 언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 프로젝트는 건물의 건축 유산과 도시 경관을 다시 연결하고 이를

as a mechanism for reconnecting and enhancing the architectural heritage features of the building and the urban landscape.

The project integrates historical heritage with contemporary design elements. Could you share your vision behind this blending of old and new, and how it enhances the overall experience for museum visitors?

I believe that the appropriate criterion for designing a project on built heritage involves adding one more layer to the building’s history. This means incorporating new strata and perspectives, establishing new hierarchies, and enriching the history of the place without erasing episodes from the past. It includes adding new layers, boldly or subtly, but always using contemporary solutions to enhance the values of the past. In this sense, an appropriate way to intervene is by creating an enriching juxtaposition between old and new elements. In the case of the Baroque Museum of Catalonia, the design mainly provides a route composed of ramps, stairs, and bleachers. This route offers views of key elements of the building, such as the cloister, a hidden inner barrel vault space, and the partition wall. It also provides views of the urban surroundings and significant elements of the city. The new accesses culminate at the highest point in bleachers where visitors can sit and view the urban heritage landscape. Thus, the project provides visitors with an initial experience of recognition of the past.

부각하는 메커니즘으로 구성되었다.

이달 아이랄: 이 프로젝트는 역사 유산과 현대 디자인 요소를 아우른다. 과거와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방식에 담긴 당신의 비전은 무엇인가? 그러한 방식은 방문객의 경험을 어떻게 확장하는가?

다비드 클로시스 이 누네스: 건축 유산 프로젝트를 설계할 때 적절한 방법은 건물의 역사 층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새로운 지층과 관점을 통합하는 것, 새로운 위계를 설정하는 것, 과거의 이야기를 지우지 않고 장소의 역사를 풍부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대담하게 또는 미묘하게 새로운 층을 추가하되 항상 현대적인 방식을 사용하여 과거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적절한 개입 방법은 오래된 요소와 새로운 요소를 풍성하게 병치하는 것이다. 카탈루냐 바로크 박물관에서는 램프, 계단, 관람석으로 구성된 동선을 주요하게 설계했다. 이 동선을 따라 회랑, 숨어 있는 아치 공간, 가벽 등 건물의 핵심 요소를 볼 수 있다. 또한, 건물 내부에서 주변 풍경과 도시의 주요 명소를 조망할 수 있다. 새 입구는 도시 유산이 담긴 풍경을 볼 수 있는 가장 높은 층의 조망 포인트에서 절정에 이른다. 이 프로젝트는 방문객에게 과거를 인식하는 첫 경험을 제공하는 셈이다.

이달 아이랄: 설계 및 시공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으며, 이를

What were some of the most significant challenges you encountered during the design and construction process, and how did you overcome them?

As with any other project of this nature, we encountered various construction-related and structural challenges. The most significant challenge was ensuring the unique integration of the design concept, required structural solutions, and the final architectural form.

The use of contemporary materials offers a strong contrast to traditional features. Could you tell us more about the choice of materials, colours, and architectural elements used in the project, particularly how they contribute to the overall aesthetic and functionality of the museum?

It is indeed true that the materials used in the Baroque Museum proposal create a strong contrast with the existing fabric. However, I believe that the contrast of materials should not always be a prerequisite for heritage interventions. Instead, the selection of materials should be based on the project’s concept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e-existing heritage. In each case, the most suitable materials should be chosen and it is crucial to indicate that they belong to a contemporary intervention. This distinction may vary in strength from one building to another, with some showing a more pronounced difference from the existing fabric while others exhibit a more subtle contrast. In this sense, each building may require a unique strategy. The main facade materials of the new volumes of the Baroque Museum are aluminium, stainless steel and concrete. These materials were selected to ensure maximum durability, minimal maintenance requirements,

어떻게 극복했는가?

다비드 클로시스 이 누네스: 유사한 성격의 다른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시공 문제와 구조 문제에 직면했다. 가장 큰 도전은 디자인 컨셉, 구조적 해결, 최종 건축물의 형태를 아울러 작업하는 것이었다.

이달 아이랄: 전통적인 특징과 강한 대조를 이루는 현대 재료를 사용한다. 프로젝트에 사용한 재료, 색상, 건축 요소 선정에 대해 설명해 달라. 특히 이 요소들이 박물관 전반에 걸쳐 미적, 기능적 측면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궁금하다.

다비드 클로시스 이 누네스: 바로크 박물관 설계안에 사용한 재료가 기존 구조물과 강한 대비를 이루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재료의 대비가 항상 유산 개입 방식의 전제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대신 프로젝트의 개념과 기존 유산의 특성에 따라 재료를 선택해야 한다. 각각의 경우에 가장 적합한 재료를 선택해야 하며, 재료가 현대적 개입에 속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대비 정도는 건물마다 다를 수 있다. 어떤 건물은 기존 구조물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반면, 어떤 건물은 미묘한 대비를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건물마다 고유한 전략이 필요할 수 있다. 바로크 박물관의 새 건물은 주로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스틸, 콘크리트로 구성된다. 높은 내구성, 낮은 유지보수의 필요성,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한 흔적이 보기 좋게 드러난다는 점을 고려해 선택한 재료들이다. 내부

and favourable ageing characteristics over time. Inside, the colour scheme predominantly consists of neutral tones, with two exceptions: the orange colour of the initial ramp and the uppermost window of the entrance. These elements serve as markers for the beginning and end of the proposed ascending promenade, resembling an “Ascension.”

The project redef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uilding and the surrounding urban environment. Could you elaborate on how this was achieved and its significance for the city of Manresa?

The project has opened the building to the surrounding public space. The cloister has become another public space in the neighbourhood with an itinerary that crosses it. With the intervention, the building, once very closed and with poor urban relationships, has established a direct connection with its immediate surroundings. Thanks to the new accesses, it has also established a visual link with the city’s most prominent urban landmarks.

As an architect, how do you see the role of adaptive reuse in preserving historical sites while meeting contemporary needs? How does this project exemplify that balance?

Introducing new and appropriate uses for architectural heritage is essential to prevent it from becoming mere archaeological remains. At the Baroque Museum, I believe we have achieved a good balance between incorporating new elements and preserving the value of the existing structure.

색상은 주로 중립적인 톤인데, 두 가지 예외가 있다. 첫 번째는 건물 초입의 주황색 램프, 두 번째는 입구의 가장 높은 곳에 난 창문이다. 이 요소들은 길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며 ‘승천’을 연상시킨다.

이달 아이랄: 이 프로젝트는 건물과 주변 도시 환경 간의 관계를 재정의한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만레사의 도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야기한다면?

다비드 클로시스 이 누네스: 바로크 박물관은 주변 공공 공간과 연결된다. 회랑은 건물을 가로지르는 경로와 함께 동네의 또 다른 공공 공간이 되었다. 이 개입을 통해 한때 폐쇄적이고 도시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박물관 건물이 주변과 연결을 꾀하게 되었다. 또한, 새 입구 덕분에 도시에서 가장 두드러진 역사적 랜드마크와 시각적으로 연결된다.

이달 아이랄: 건축가로서 역사적인 장소를 보존하는 동시에 현대적 요구를 충족하는 데 있어 적응적 재사용의 역할을 어떻게 보는지? 이 프로젝트는 어떻게 그 균형을 잘 보여주고 있는가?

다비드 클로시스 이 누네스: 건축 유산이 단순한 고고학적 유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새롭고 적절한 용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바로크 박물관에서는 새로운 요소의 도입과 기존 건축물의 가치 보존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았다고 생각한다.